

2024년 06월 05일 23주간

제24-23호  
목장성경공부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02 2613-2080 . 2683-2080  
FAX 02 2689-1230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제22과	연합을 이루시는 성령
성경말씀	에베소서 2장 18~22절(신약p.311)
암송구절	에베소서 2장 22절(신약p.310)
찬 송	찬송가 208(통246)장 내 주의 나라와 찬송가 35(통50)장 큰 영화로신 주

## 본 문 이 해

현대사회를 일컬어 개인주의, 파편화, 각자도생, 이기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공동체성이 무너지고 자기중심성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기독교 진리는 그러한 것을 버리고 서로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 됨’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 되고, 신자와 그리스도가 하나되며, 신자와 신자가 하나되기 위해 ‘밖으로 불러 모여진 에클레시아 공동체’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 됨의 중심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됩니다(엡 2:18).

## 말씀 속으로

1.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누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됩니까?

에베소서 2장 18절

-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 보충설명

본문에서 ‘우리 둘’은 그리스도로 서로 화목하게 된 유대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동등하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은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어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라고 말씀하심으로 둘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강조하며 하나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임을 말씀합니다.

## 2.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

-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칭했습니다.

보충설명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님을 강조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성도들의 공동체에 속한 시민, 곧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완전한 권리와 특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합법적인 가족의 일원이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과거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불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엡 2:2). 이제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된 그들을 한 가족으로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 3. 성도는 성령 안에서 무엇이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2절

-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보충설명

여기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성전’과 동의어이며,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성전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성전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만나는 물리적 장소였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 성도들과 유대 성도들이 함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 묵상 이야기

모삼열(Samuel Forman Moore) 선교사가 1892년 곤당골교회에서 사역할 때, 백정들을 많이 전도했습니다. 이때 백정 박성춘과 가족의 질병을 임금의 시의였던 애비슨을 통해 치료해 주었는데, 이 일로 박씨 가족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분 때문에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모삼열 선교사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차별은 없다”며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더 나아가 신분 철폐를 위해 정부에 청원도 했습니다. 이후 교회에서는 신분과 상관없이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고 박 씨는 장로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사회적 신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

## 나눔

- 교회의 연합을 위해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 기도

-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적용

- 내 신앙생활은 ‘개인주의’가 강한지 ‘공동체 중심’인지 돌아봅시다.